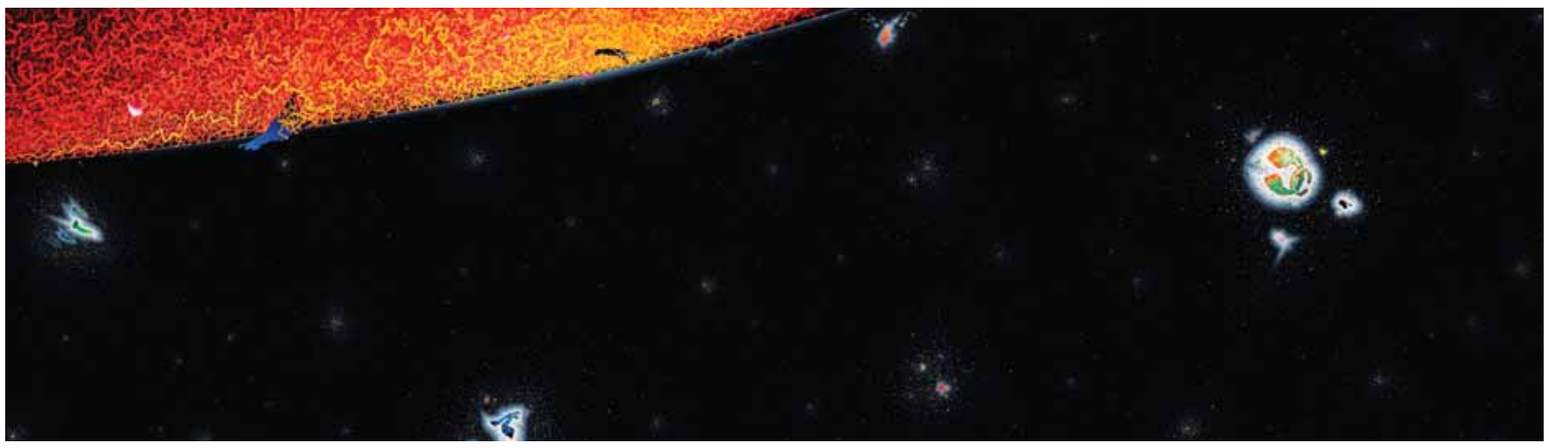

'욕망'(2016)

인간 심연 속 '욕망' 보여주고 싶다

'어둠의 세월-아버지'

신창운 내달 3일까지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초대전

"'보도연맹사건'에 희생된 할아버지 얘기 충격"

작품에 국가폭력 등 담아…다양한 장르 도전

까만 배경에 구불구불한 주황빛 줄 수만개가 얽혀있는 그림이 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뱀 또는 사람 혈관이 떠올라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아우성을 치는 인간 군상인 듯 무질서, 혼란이 화면을 가득 채운 '욕망' 시리즈다.

이 시리즈를 작업한 신창운(46) 작가는 "인간 심연 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욕망은 전우주에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7월3일까지 청년작가 초대전을 여는 신 작가를 만나 '왜 욕망을 탐구하고 있는지, 욕망이란 어떤 의미인지' 들어봤다.

"전 시골(장성군 삼계면)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던 중 누가 논두렁에서 이젤을 펴고 풍경을 그리고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멋있어서 한참을 옆에서 구경했어요. '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지'하고 생각했죠. 제 자랑 같지만 초·중·고 시절 상을 많이 받아 학교에서 '그림'하면 항상 제가 먼저 꼽혔어요."

신 작가는 화가가 된 계기를 설명하며 작품 '어둠의 세월-아버지'(2000)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갈라진 논에 촌로가 등장하는데 목부터 그려 머리는 보이지 않았다. 신 작가는 "꿈을 이루지 못했던 아버지가 체념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고 소개했다.

고교 2년 어느날 할머니는 숨겨왔던 가정사를 털어놓았다. 이승만 정권 시절 할아버지가 보도연맹 양민학살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도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어린 신 작가에게 이 이야기는 큰 충격이었다. 이후 국가가 행한 폭력으로 인해 생긴 민중 상처는 신 작가 예술세계를 지배했다. 동학, 5·18, 제주 4·3 항쟁 등을 소재로 한 초기작부터 최근작 '욕망' 시리즈까지 관통한다.

전남대 미술대학에 진학한 신 작가는 민중미술 성격이 강한 작품을 주로 그렸다. '어둠의 세월' 시리즈를 비롯해 '한밤의 되울음'(1994)은 첨단지구 개발로 옛모습이 사라져가는 광주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20대 청년 시선을 엿볼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001년 그린 '내 강토'시리즈는 가정사에서 비롯된 국가폭력에 대한 시각을 전세계로 넓힌 작품이다. 휴전선을 따라 걸으며 느꼈던 생각을 담았다. 한반도를 '대동여지도'처럼 금색으로 그리고 바다는 붉은색을 사용했다. 미국을 상징하는 얼룩무늬 뱀을 등장시켜 강대국에 의해 조국이 반토막난 현실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이 때부터 구불구불한 선이 작품에 등장한다. 2002년 작 '내 땅에서'시리즈에서는 상처를 보듬는다. 본인과 아내, 아들을 모델로, 대지 위에 사람들이 서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신 작가 예술 세계 특징은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작가 한명이 작업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시장을 옮길 때마다 설치, 조소,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볼 수 있다. 회화도 한지, 캔버스, 아크릴물감, 먹 등 여러 재료를 사용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보여준다. 비슷한 작품에만 매달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있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변화를 줘야된다는 생각에서다. 지난 2006년 전남대 인류학과 대학원 진학도 똑같은 이유다.

"계속 그림만 그리다보면 미술 안에 갇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학문을 통해 미술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인류학과 대학원을 입학했죠."

내친 김에 지난 2008년 인도 유학까지 약 2년간 다녀왔다. '욕망' 시리즈가 탄생한 곳이다. 욕망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인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 명품 브랜드 로고, 세월호, 종교, 돈, 원자력 핵, 음식 등 욕망에 관한 소재를 풍성하게 사용했다. 초기작부터 보였던 구불구불한 선과 붉은색도 여전히 등장한다.

"'욕망'에는 국가폭력, 상처, 사랑 등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를 통해 제 자신을 정리하고 돌아보게 됐어요. 당분간 '욕망' 시리즈를 계속 할 생각이지만 설치미술 등 하고 싶은게 너무 많네요. 언젠가는 인도도 다시 가고 싶고요. 풍족하진 않지만 하고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전 행복한 사람입니다."

문의 062-613-539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故 천경자…벌써 1년

서울시립미술관 내일~8월 7일 추모전

'고'

고(故) 천경자 화백의 1주기를 추모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시립미술관이 14일부터 8월 7일까지 천 화백 1주기 추모전 '바람은 불어도 좋다. 어차피 부는 바람이다'를 연다.

추모전에는 천 화백이 1998년 서울시에 기증한 작품 93점를 비롯해 '고'(1974년작), '초원Ⅱ'(1978), '막은 내리고'(1989) 등 대표작 등 총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관은 '인생', '여행', '환상' 3가지 주제로 나눠 천 화백 학생 시절 작품부터 60여 년 화업(畵業)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또 기존 '천경자 상설전시실'에는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천 화백이 남긴 수필집과 기고문, 삽화, 관련 기사, 사진, 영상 등을 모아놓은 '아카이브' 자료를 전시한다.

천 화백은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이 벌어지자 절필을 선언한 뒤 미국으로 떠났으며 1998년 일시 귀국해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 93점을 기증했다.

전시회 제목은 천 화백 수필집 '자유로운 여자'에서 '바람은 불어도 좋다. 어차피 부는 바람이다. 어디서 일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들. 그 위에 인생이 떠 있는지도 모른다' 글귀에서 따왔다.

전시와 연계해 21일 오후 미술관에서 이태호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강연, 큐레이터가 추모전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뮤지엄나이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7월6일에는 천 화백이 한국 미술계에 끼친 영향과 의미를 되새기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연합뉴스

어린이문화재 그리기 수상작 展

국립광주박물관 8월까지

신윤호 작 '시루와 가지방울'

국립광주박물관이 8월31일까지 '어린이문화재 그림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9일 진행된 '제29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로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418명이 참가해 솜씨를 뽐냈다.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시루와 가지방울'을 그린 신윤호(삼육초 6년) 어린이가 당선됐다. 최우수상에는 김보민(송원초 6년), 김승연(운천초 5년), 고단우(건국초 4년), 문도영(삼육초 3년), 이유송(본촌초 2년), 류아인(송원초 1년)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우수상 15명, 특선 22명, 가작 28명, 입선 100명이 선정됐다. 문의 062-570-701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